이타심으로 화합 실천을

신뇨엔 교무장
니시가와 세이지(西川勢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와 전쟁, 분열과 불신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모으는 화합의 실천입니다. 신뇨엔은 개조 이토신죠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의 안온과 고인의 추복을 기원하며 자비의 기도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행은 이타행으로 이어지며, 살아 있는 이와 떠난 이를 함께 품는 자각과 회향의 길입니다.

이타의 실천은 등불이 되어 우리 안의 평정과 지혜를 밝혀 줍니다. 현 원주이신 이또 신소의 가르침처럼, 모든 이가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삶을 살아가며, 자비와 화합이 넘치는 융화 세계가 실현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자성성찰하여 불국토이루세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 도선 스님



空門有路不知處
頭白齒黃猶念經
何年飮著聲聞酒
迄至如今醉未醒
텅빈 길이 있었건만 장소를 몰라서
백발이 되고 이가 누르도록 경만 읽었구나
어느 해 성문의 술을 마셨기에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였는가

恭肅(공숙)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여 懺悔(참회)합시다. 世尊(세존)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바세계 無智(무지)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無智(무지)의 중생들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맙시다. 受持奉讀(수지봉독)하여 智慧(지혜)를 밝혀 無明(무명)에서 벗어나 三毒心(삼독심)을 여의고 自省(자성)·省察(성찰)하며 佛國土(불국토)를 이루도록 정진합시다.

분별 여의면 번뇌 있으랴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허망한 몸을 거울 앞에 비치면 그림자와 허망한 몸이 다르지 않은데 그림자만 없애고 몸만 남겨 둔다면 몸의 근본이 함께 허망한 것임을 모르는 짓일세, 몸의 근본과 그림자가 다르지 않으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앨 수 없네.

하나만을 남기고 하나를 버리려 하면 영원히 진리와는 어긋나는 것인데 더구나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면 생사의 바다 속에 빠져 들리라. 번뇌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에 있으랴.

본별로 형상을 취할 필요가 없나니 자연이 잠깐 사이에 도를 얻으리라.

자비 등불로 세상 밝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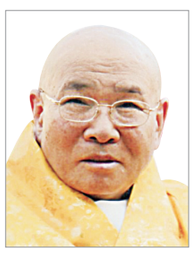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 새기며, 한없는 지혜와 자비의 빛을 온 누리에 퍼뜨릴 것을 서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고통의 뿌리를 꿰뚫어 보시고,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삶과 죽음, 희로애락 속에 숨겨진 인연과 공(空)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중생이 스스로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 속에서도 탐욕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할 때입니다. 자비는 남을 이롭게 하고, 지혜는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안의 무명(無明)을 걷어내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밝은 등불, 세상 물들이자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상을 향해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고, 나아가 세상 모두가 밝아지면 고통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세상 곳곳에 환히 비춰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스스로의 마음속 등불을 환히 밝혀, 행복과 평화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원융 화합으로 행복 세상을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의 불자와 국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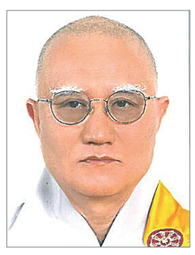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하나되는 원융(圓融)과 화합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여 진정한 원융과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 세상을 환히 비추는 자비의 등불이 됩시다.

일붕의 자비로 세상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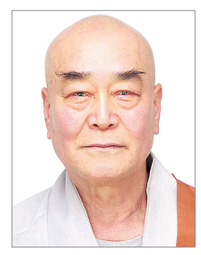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의 불자와 국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붕존자께서는 늘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온 세상에 따뜻한 자비와 밝은 지혜를 나누는 데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가르침을 새기며, 세상 속에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붕존자의 뜻을 받들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환해질 때 세상도 밝아지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일붕존자의 가르침처럼 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평화의 세상, 열어 갑시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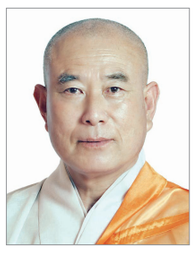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그 인연 따라 변화하고 소멸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삼론의 가르침은 이 연기(緣起)와 공(空)의 이치를 현대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과 대립, 물질적 욕망 속에 본래의 평화와 조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인연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승 서원으로 걸어갑시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대승의 길은 나 홀로의 해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 또한,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는 무한한 자비와 동체대비(同體大悲)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이기적이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대승의 서원을 더욱 굳게 세워야 합니다. 내 행복만이 아닌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대승보살의 실천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대승의 서원을 다시 다짐합시다. 나와 이웃, 자연과 세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며 함께 행복을 이루어 갑시다.

마음 나누는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으로 이 세계에 오셨고, 우리는 그 인연 따라 오늘 다시 마음의 등불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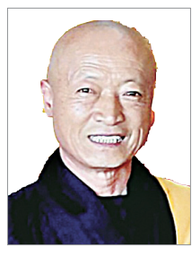
삶은 끊임없이 고와 낙을 오가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부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를 향해 연등 하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 등불이 다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가벼이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히 손을 맞잡아주는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되는 세상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기(緣起)의 이치를 설하셨습니다. 나와 너, 이웃과 사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이해 속에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평등과 자비의 세계는 바로 화합과 상생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작은 마음 하나라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갑시다.

국태민안 길을 열자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룰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아가 그 조화는 가정과 사회를 넘어 나라와 세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끊임없는 변화와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화합하는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국태민안,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행복한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지혜를 삶 속에 실천하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내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깨달음의 지혜로 하나 되어, 국태민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서원합니다.

아픔 치유의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산불로 인해 자연이 황폐해지고, 많은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아픔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 우리의 마음까지 깊이 흔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을 어루만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언종의 수행은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새기며, 행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비심의 진언을 마음속 깊이 지극히 외워,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희망의 빛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닿아 삶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하고, 이 땅에 다시 평화와 생명의 숨결이 가득 퍼지기를 발원합시다.

갈등 치유 계기 만듭시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께서는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혼란하고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감싸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 진정한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 연등, 자비길 밝히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일륜 스님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이 땅 위에 가득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많은 세상에 자비로 오신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연등 하나하나에 평화와 희망의 염원을 담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 나눔과 자비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부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로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불 하나, 세상 깨우다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스님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은 더욱 환하게 타오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우리는 한 송이 연꽃처럼 마음에 피워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알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이웃의 아픔에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중심을 지녀야 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맑은 마음입니다. 이 연등 하나가 고요히 깨어 있는 마음의 빛이 되어, 세상의 갈등을 씻고, 생명 모두를 따스하게 품어 안기를 기원합니다.